

존중하는 공연 문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 엿보기

Exploring Diverse Thoughts Towards a Respectful Performance Culture

박진덕(Park, Jindeok)*

장근영, 이성수(2024).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예술현장의 배리어프리 리얼타임. 1도씨와온도들.

성인 손바닥 사이즈의 핸디한 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예술현장의 배리어프리 리얼타임』(2024)의 저자 근영님과 성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25년 햇볕이 뜨거운 여름의 리움미술관에서이다. 한강진에서 리움까지의 경사지고 온전하지 못한 도보를 약 10주간 오르내리며 필자는 접근성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쌓아갔다. 2024년, 우연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의 안무적 접근과 교육적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리움에서 저시력 관객과 함께 새로운 전시 감상 방식을 실험하는 리서치기반 <보자보다보니까> 워크숍 소식은 너무나 매력적인 경험으로 다가왔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이성수님과 필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새로운 전시 감상법을 실험한 장근영님의 책을 읽으며, 접근성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물리적 장벽에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습관처럼 사용하는 일상 언어 속에서도 비장애 중심적 사고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고,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했다.

현재 국내 예술계에는 포용과 다양성의 실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술적 도전과 장애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그리고 올해 10회를 맞은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에서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필자를 포함한 댄스앤미디어연구소의 연구자 6명(김아롱, 박진덕, 이주원, 최윤영, 한석진, 한지영) 또한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모두극장의 모두스튜디오에서 <낮술에서 한 걸음: 장애무용의 교육적 도약>(2025)이라는 주제로 장애, 무용, 교육, 개념, 안무적 접근을 둘러싼 대답들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회적 확장 속에서 예술가, 교육자, 연구자들에게 장애, 장애인 창작자, 장애인 관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분명히 요구된다. 하지만 여전히 현존하는 관련 연구 자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장애 당사자의 경험을 통한 발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많은 시사점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체

* 한양대학교 에리카 무용예술학과 조교수, jinduks@hanyang.ac.kr

크리스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장근영의 <배리어프리 다이어리>, 2장은 이성수의 <배리어프리 공연을 준비하는 창작자들에게>, 마지막 3장은 <배리어프리 공연·전시 제작을 위한 TIP>으로 마무리 된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점검 목록을 제시하는 유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각장애', '전맹과 저시력', '점자',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 '접근성' 등의 개념을 정리하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인식을 다시금 옳은 지식으로 전달해준다. 예를 들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전맹(전혀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며, 보이는 범위나 형태는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한다.

1장 <배리어프리 다이어리>에서 근영님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직접 연극을 창작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객의 한 명인 '시민참여자'로 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웹사이트의 구조로 인해 스크린리더의 사용이 어렵거나, 예매 과정에서 정보를 얻기 힘든 불편함 등, 공연 접근의 첫 단계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공유한다. 이어 공연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이동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사전 음성해설과 터치투어의 중요성 등 비장애 관객이라면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드러난다. 사전에 공연의 대본 등을 음성 파일로 전달 받거나 촉각을 통해 무대 일부를 체험하는 것은 시각장애 관객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우리의 공연 경험 방식을 확장하는 예술적 연구이기도 하다. 글의 내용 중에 "나는 귀로 공연을 즐긴다. 그런데 이 귀로만 즐기는 관람은 생각보다 무척 피곤하다"(장근영, 이성수, 2024, p. 84)라고 언급한 대목은 정보의 양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시킨다. 즉, 과도한 설명이 때로는 관람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해설이 필요한 걸까? 제작자의 선택에 이러한 소중한 경험담은 장애라는 '낯섦'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길잡이가 된다.

2장 <배리어프리 공연을 준비하는 창작자들에게>, 성수님은 현재 '힘빼고 킴퍼니'라는 이름으로 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성수와 근영이의 오픈/아웃 마이크: 날아라 서핑보드」(2024), 「도깨비 안마원」(2024), 「빙빙빙」(2023) 등의 작업이 기반이 되어, 그는 배리어프리를 단순한 공연의 보조수단이 아닌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배리어프리는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장근영, 이성수, 2024, p. 154). 즉, 배리어프리 공연은 구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관객이 선택할 수 있는 창작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공연이라는 장르를 찾는 관객은 시각 외에도 다른 감각들이 함께 펼쳐지는 그 나름의 공연의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 <배리어프리 공연·전시 제작을 위한 TIP>은 배리어프리를 제작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터치투어 준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인 적정 인원수, 내용 구성, 시간들에 관한 것과, 지시어에 대한 중요성, 사전음성해설의 전달 방법, 속도 등 책 전반에서 다뤘던 개선이 필요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한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 작은 책에는 창작자이자 '시민 참여자'로서 겪은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방안들이 담겨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상을 듣고, 함께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존중'이라는 태도가 없다면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다름을 구별하기보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연예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많은 정보들이 유용하더라도 절대적인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틈을 열어 주며, '모두'가 함께하는 공연예술 문화를 다시금 정의하고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